



서신동, 행복한 삼시세끼 찬(饌) 나눔 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동장 노상목)은 10일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찬(饌) 나눔' 행사를 가졌다. 매일 진행되는 '행복한 삼시세끼 찬 나눔' 사업은 전주전광다이얼스클럽에서 서신동과 후원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은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더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를 만들어 가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우리 이웃을 찾고, 살펴보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이·미용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는 10일 관내 거주하는 홀로어르신 5분을 모시고 이·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 회원인 김준섭 이용사(인후동 캠퍼이용원)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봉사에서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건강도 살폈다. 황승일 회장은 "어르신들이 이발한 후에 개운해 하시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면 마음 속에 뿌듯함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이·미용 봉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학대피해아동 심리·정서안정 지원

서전주로타리클럽, 치료·보호 위해 30000달러 후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은 10일 전주시를 찾아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만 달러(약 3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지원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조현경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사업 등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심리·정서가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박지원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은 "아이들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따뜻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다양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



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전주로타리클럽은 1970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무주군산림조합, 조합원 자녀들에 장학금 전달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은 10일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조합발전에 기여한 조합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반이 되는 대학생 1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중·고등학교 8명에게는 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했다. 박철수 조합장은 "조합원 복지향상과 발전방향을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물론 지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과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을 산주·임업인의 소득과 연계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 뱀사골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개최

남원시는 지리산의 안녕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신제'가 2월 10일 10시에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산내면 와운(臥雲)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산제는 지리산 천년송 문화보존회와 와운마을 주민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내농악단의 터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풍년과 주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이 행해지고 이어서 가족 소원빌기 행사로 소지(흰 한지를 태워서 정화하고 기원하는 의식)도 진행되었다. 천년송 당산신제는 임진왜란 전부터 500여년 넘게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당산목인 할아씨(할아버지)소나무와 할매소나무(천연기념물 424호)에게 제를 지내온 것으로서, 매년 음력 1월 10일 와운마을 천년송 일원에서 지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5기 찾아가는 동향면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안한수)는 10일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제5기 찾아가는 동향면 노인대학(학장 구동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안한수 회장, 구동수 대학장을 비롯해 노인 대학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입학식 선서, 학사계획 보고, 노인 대학장의 입학 식사 순으로 진행했다. 수업은 오는 3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2회 수업을 진행한다. 교양 시사 건강관리, 웃음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참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멋지고 품격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레슬링 전국 최강 증명... 중등부 등 고루 메달 획득

전북 레슬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합평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및 아시아주니어·아시아카넷 파견 선발대회에서 전북은 중등부와 고등부·대학부·일반부 등에서 고루 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진안중 한우진과 윤광민은 각각 그레코로만형 45kg급과 110kg급에 출전해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도 메달을 대거 수확했다. 그레코로만형에 나선 최재노(92kg급)와 진영준(51kg급), 서문혁(60kg급), 권태용(65kg급)은 당당히 최정상에 올랐고, 자유형 60kg급에 출전한 김도형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진수와 김정민, 최치빈은 각각 자유형 65kg급과 71kg급, 110kg급에서 값진 2위를 기록했고, 이나현은 65kg급 3위에 올랐다. 대학부의 선전도 이어졌다. 전주대 이효진과 윤동현, 소원, 오민서는 그레코로만형에서 1위에 올랐고, 정성연



과 손태양은 값진 2위를, 김민준은 3위를 차지했다. 원광대 박우빈은 자유형 97kg급에서 금메달을, 강현서는 88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완주군청의 이한빛과 문다은은 각각 자유형 62kg급과 50kg급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북도청의 정진웅과 김지훈, 조용범은 그레코로만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제4회 교양교육 심포지엄 개최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이 제4회 교양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대학의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성학 교양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혁신'을 주제로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윤승준 단국대 자유교양대학장이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단국대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송하석 아주대 다산학부대학장(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장)도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아주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설숙희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이 2021학년도 교양대학 운영성과와 교양혁신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심포지엄 이후 참석자들은 포스트 휴먼시대에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남천현 총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양교육의 본질을 구축해야 하고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며 "보편적 교양과 전인적 품성을 갖춘 성찰하는 지성인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통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2021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최우수 개선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